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1호 【루계 제24829호】 주체104(2015)년 2월 20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설명절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주체104(2015)년 설명절을 맞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만수대언덕으로 끝없이 굽이쳤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돌이켜보며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치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인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만경대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키우는 가정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의 솜옷과 신발을 마련하여 안겨주면서 생활상애로도 풀어주어 사람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서성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구역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도로관리원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당일군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관리원들을 비롯한 도시경영부문 로동자 170여명에게 솜옷과 솜신발, 작업모자들을 마련해주고 구멍탄도 공급해줌으로써 그들이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말은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인민들에게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는 많은 일감들을 찾아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신포시당위원회에서는 자연흐름식으로 인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70여리에 달하는 수도관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으며 국수집과 은덕원개건공사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홍원군당위원회에서도 자연흐름식으로 먹는물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근 50리에 달하는 수도관공사와 배수지물탕크공사를 끝낸 기세로 태양절까지 읍지구의 주민세대들에 수질이 좋은 먹는물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있다.

강계시당위원회에서는 강계식료공장과 강계기초식품공장을 개건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이바지할 수십가지 일감들을 목표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고있으며 허천군당위원회에서는 은덕원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며 새로운 양어기지도 꾸려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함주군당위원회에서는 군연료사업소를 개건확장하여 더 많은 구멍탄을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과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있으며 태천군당위원회에서는 체육관건설을 다그치면서 군급기관 일군들이 소층살림집을 여러동 맡아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구장군당위원회에서도 군문화회관과 미래원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밀고나가면서 군연료사업소의 구멍탄생산능력확장공사를 벌려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우시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산모들을 위해 물과 닭알도 공급해주고 입원환자들의 식사질을 높이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겨울철에도 은덕원과 급양봉사망의 운영을 잘하여 인민들로부터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초산군당위원회에서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일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에서는 초산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완공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면서 군체육관건설도 동시에 내밀고있으며 양어장을 더 늘여 인민들에게 펄펄 뛰는 물고기를 많이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동림군당위원회에서는 식료공장과 종이공장, 파일남새가공공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는것을 비롯하여 군안의 인민들에게 질좋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들을 착실하게 밀고나가고있다.

강서구역당위원회에서도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인민들을 위한 60여가지의 일감을 목표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뛰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기업소의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으며 안변군당위원회에서는 국수집을 더 잘 꾸리고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개건사업 등을 빠른 기간에 끝낼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천군당위원회에서는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생산으로 군소재지의 가로등과 불장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종합식당과 역전려관의 개건보수 등 군소재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배천군당위원회에서는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은덕원과 군민체육공원을 잘 꾸려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뜨겁게 안겨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겨울철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도육아원과 도애육원건설장에 보온대책을 세우고 기초타입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김형직군당위원회에서는 은덕원, 미래원, 포평학원, 버섯공장, 2개의 목장건설과 함께 김성주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를 군자체의 힘으로 해제낄 높은 목표를 내걸고 정초부터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있는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해빛은 온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더 따뜻이 비쳐들게 될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영광의 대축전장을 향한 우리 인민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인민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

자강도에서

자강도에서 보건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면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보건부문에서는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의 요구에 맞게 병원,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기관들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리고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추는것과 함께 보건일군들의 의료봉사수준을 높이도록 지도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시중군인민병원, 위원군인민병원이 새로 일떠섰다. 성간군인민병원, 자성군인민병원, 초산군인민병원, 우시군인민병원을 비롯한 군인민병원들에서 병동들이 보건의학적요구에 맞게 개건되였다. 동신군 읍종합진료소, 만포시 건상리진료소를 비롯하여 도적으로 많은 종합진료소, 진료소들이 치료예방사업의 거점답게 보다 훌륭히 꾸려졌다.

도안의 시, 군인민병원들에서는 현대적인 먼거리의료봉사설비를 그쯘히 갖추어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즉시적인 치료대책을 세워 치료예방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강계, 희천, 전천, 동신을 비롯한 시, 군인민병원들에서는 보건성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복부초음파기, 심전도를 비롯한 의료설비들을 갖추어놓고 진단의 과학성을 높여나가고있다. 시, 군인민병원들에서는 특히 산모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보건부문 일군들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더 높이 발양되도록 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도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수천m의 천을 강계은하피복공장에 보내주어 만든 질좋은 입원환자복을 도인민병원, 도소아병원, 도산원을 비롯한 병원들에 공급해주었다.

도에서는 도소아병원을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의 거점답게 훌륭히 개건보수하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이 도소아병원 개건보수공사장에 수시로 나와 시공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동물조각, 유희시설을 갖춘 공원도 특색있게 꾸려주고 구내포장도 잘하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7개월동안에 3층짜리 도소아병원이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도에서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닭알을 도소아병원에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강계고려약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 효능이 높은 대중약들과 여러가지 엑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약초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도에서는 국가적명절과 기념일을 계기로 강계시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에게 갖가지 보약을 만들어 보내주는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도의 의료일군들속에서 높이 발휘되는 감동적인 소행들은 올해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물고기잡이준비를 빈틈없이

강원도수산관리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강원도수산관리국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관리국당위원회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올해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도록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국의 일군들은 지난해 물고기잡이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관리국아래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 물고기잡이준비를 잘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또한 수산사업소들을 맡고 내려가 물고기잡이준비에서 기본인 배수리를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도록 하는것과 함께 어구자재들을 충분히 갖추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관리국에서는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물고기잡이준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배수리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원산선박수리공장의 일군들은 배수리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예비부속품을 미리 마련하여 배가 들어오는족족 제때에 수리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배수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1월 배수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통천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자체로 마련하여 모든 고기배들이 만가동할수 있게 해놓았다. 최근에만도 이 수산사업소에서는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새로운 어구들을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명사수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아래 모든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도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에 넘쳐 배수리와 어구자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더불어 빛나는 민족전통

인민의 꿈과 리상이 사회주의대지에 활짝 꽃펴나고있다.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릉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이곳에서 문명세계의 희열을 한껏 느끼는것도 좋지만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곳곳에 훌륭하게 꾸려진 민속거리들과 민속공원, 급양봉사망들에서 맛보는 민족의 향취는 또 얼마나 좋은가.

옷차림도 민족옷차림, 음식도 민족음식, 노래도 조선민요가 제일이라며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황홀한 조선춤가락을 펼쳐가는 기쁨과 랑만은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하여준다.

민족의 정기와 넋으로 충만된 생활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겨본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꽃피워주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올해신년사의 이 구절들에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아무리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민족전통을 가지고있다 하여도 그것이 저절로 이어지고 빛나게 계승되는것은 아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살아온 슬기롭고 존엄높은 조선민족이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품성,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품성, 동정심이 많으며 례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

지난날 훌륭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세월에는 민족성은 고사하고 자기 이름도 지켜낼수 없었던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러하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이는 문제를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보시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 우리 어찌 오늘의 긍지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으랴.

오랜 수난의 세월 력사의 풍운속에 귀중한 유적유물들이 흩어지고 파묻힌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문제는 인류문화발상지로서의 인류사적지위가 무시되고 우리의 고유한 혈통까지 부인, 외곡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유적유물에 대한 발굴고증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민족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시였으며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해방후 건당, 건군, 건국의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이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력사문화유적유물발굴사업을 잘하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지, 명소들과 천연기념물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유적유물들에는 몸소 그 발굴과 고증, 개건과 보호관리사업도 세심히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것이 민족의 재보로, 인민의 향유물로 되도록 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다심한 사랑이 아로새겨져있다.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더욱 활짝 꽃펴났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도서 《조선의 민속전통》에도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의 세계가 깃들어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에 대한 책을 집필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서집필에 필요한 자료들도 보내주시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마침내 도서 《조선의 민속전통》이 완성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널리 리용되게 되였다.

고난의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였다.

해마다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되는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장에 유정하게 울려퍼지는 금소방울소리와 더불어 전해지는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주체88(1999)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체육부문의 한 일군에게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유격대원들속에서 씨름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민족체육종목인 씨름을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로부터 몇해후에는 일군들에게 씨름경기는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하는 특색있는 종목인데 인기있게 조직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기관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시상품으로 소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이렇듯 우리 장군님의 세심하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민족씨름경기는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로 그 내용과 품격이 달라지게 되였으며 1등을 한 선수에게는 대황소와 함께 특색있게 만든 금소방울을 수여하게 되여 경기는 사람들의 인기를 더욱 끌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랴.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량천사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천사를 돌아보시며 력사문화유적들에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건축술과 뛰여난 예술적재능이 깃들어있는것만큼 보존관리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모든 부문에서 력사문화유적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을 옳게 살리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려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95(2006)년에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날 일제에게 강탈당하였던 북관대첩비가 100년만에 다시 자기 자리에 세워지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생겨나게 되였다.

민족의 넋과 생활정서가 깃들어있는 설명절과 정월대보름, 추석과 같은 민속명절들이 널리 쇠여지게 되였고 씨름과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체육경기들과 그네뛰기, 장기, 윷놀이, 연띄우기 등 민속오락들이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여 민족의 향취가 한껏 넘쳐나게 된 이 땅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풍만하게 가꾸어주신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화폭이다.

선군으로 존엄높은 내 나라, 내 조국강산에 나날이 넘쳐나는 민족의 향취와 정서,

정녕 그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우리 민족의 현대력사를 빛내여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아오신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찬란히 꽃펴나고있다.

몇해전 1월의 맵짠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찾으시여 공사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준공을 앞둔 어느날에는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여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건설을 몸소 발기하신 장군님을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참으로 평양민속공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떠받들리여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민족의 넋과 슬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주는 대로천력사박물관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총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자.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자.

바로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는 참다운 애국의 길이기에 천만군민의 결의 또한 드높다.

그렇다.

조선민족,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영원히 태양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칠것이며 이 땅에는 우수한 민족전통이 더욱 찬란히 꽃펴날것이다.

채 히 성

민속명절에 깃든 사연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노래소리 넘쳐나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여난다.

은은한 평양종소리가 들려오는듯 싶은 모란봉을 비롯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민족의 향취와 정서가 넘쳐흐르고있다.

지금은 누구나가 다 달력에서 설날이 언제인가고 물으면 대뜸 1월 1일과 함께 설명절날을 찾아보고 대답하군 한다.

하지만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어떻게 설명절이 민속명절로 깊이 새겨지게 되였는지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수한 민족성이라고 하여 저절로 후세에 이어지고 꽃펴나는것은 아니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가 차넘치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의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시기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되새겨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우리의 민족적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1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올해 음력설이 언제인가고 물으시였다.

누구에게라없이 하신 그 물으심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음력설을 력사책에서나 보던 옛 풍습상의 명절로 알고있은데다가 쇠여본지도 까마득하기 때문이였다.

그러한 일군들의 마음속생각을 헤아려보신듯 잠시 말씀이 없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음력설을 쇠는것이 전통으로 되여있었다고, 해방직후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이 음력설을 크게 쇠군 하였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음력설을 쇠는 전통이 해방후 없어진것 같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음력설을 쇠게 하는것이 나쁘지 않다고, 음력설을 쇠는것도 문화정서생활의 하나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어쩌면 그리도 설명절의 유래와 풍습을 잘 알고계실가 하는 생각으로 일군들은 그이를 우러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음력설을 쇠지 않으면 앞으로 후대들이 음력설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앞으로 음력설을 어떻게 쇠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나하나 깨우쳐주시였다.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살리는것을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을 높여주고 민족적존엄을 떨치게 하는 중대사로 보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새겨안는 잊지 못할 하루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화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가 취해지게 되였으며 음력설은 달력에도 설명절로 새롭게 표기되여 우리 민족의 즐거운 민속명절의 하나로 되게 되였다.

어찌 그뿐이랴.

민속명절을 다 찾아내여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을 지켜나가도록 일군들을 깨우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와 력사를 가진 우리의 민족적전통이 날을 따라 더욱 활짝 꽃펴나지 않았던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즐겨맞이하는 민속명절의 하나인 설명절,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나라와 민족이 강해지고 민족의 우수성도 더욱 빛난다는 철리를 우리 인민이 해마다 즐겨쇠는 설명절은 소중히 전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새집들이날 가져오신 성냥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태양의 축복을 보내고계시는 만수대,

그 하늘에 지붕을 얹고 그 기슭을 터전으로 하여 솟아오른 인민의 집, 황홀한 창전거리의 새 집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날은 이 땅에 례사롭게 흘러가던 평범한 날들중의 하루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속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들에는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풍모와 정서가 반영되여있습니다.》

주체101(2012)년 9월 어느 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동자부부의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시였다.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면서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편 그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였다.

우리 나라는 로동계급의 세상이고 평백성이 온갖 복락을 누리는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싶다는 이들부부의 진정에 넘친 이야기도 웃음속에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집들이를 한 집에 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가는것이 우리 나라 풍습이기때문에 오늘 성냥을 가지고왔다고 하시며 집주인에게 성냥을 넘겨주시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집들이를 할 때에 새살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냥을 비롯한 생활용품들과 음식재료를 가져다주는 좋은 풍습을 전해오고있다.

성냥이 리용되기 전에는 집들이를 하는 집에 부시(불을 일구는 도구)를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다.

집들이를 하는 주인들에게 부시를 가져다주는것은 불길이 타오르듯이 앞으로 살림이 번성하고 잘되여나가라는 의미도 담겨져있었다. 성냥이 생활에 리용되면서부터 집들이때에 부시를 가져다주던 풍습은 성냥을 가져다주는 풍습으로 바뀌였다.

로동자부부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이 없었다.

아래구들이 더워야 복이 온다는 격언이 있다.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을 잊지 않으시고 궁궐같은 새 집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지고오신 성냥,

그것은 대동강반의 멋쟁이살림집에 들어서시며 집주인에게 새집들이를 축하해서 성냥을 가지고왔다고 하시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였다.

그것은 친어머니보다 먼저, 친아버지보다 먼저 새집들이하는 집집의 문을 여시고 만복이 넘쳐나기를 따뜻이 축복해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응심깊은 사랑이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교육자가정과 신혼부부가정에도 성냥을 비롯한 가정용품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을 안겨주시며 다심한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오늘도 창전거리의 집집마다에서는 새집들이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던 우리 원수님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우리의 풍습,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절세위인의 위대한 사랑속에 이 땅에는 민족의 향취가 끝없이 넘쳐흐르고있다.

본사기자

‖수 필‖ 아리랑에 대한 생각

조선민요 《아리랑》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

이 소식이 나에게 준 감흥은 오늘도 생생하다.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자기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우리 민요에 대한 형언할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

하여 민요 《아리랑》을 불러보게 된 나의 생각은 깊어갔다.

세상에는 민족마다 민요가 있다. 세월의 이끼속에 묻히고 력사책에 이름마저 남기지 못한 민요들은 그 얼마인가.

하지만 우리의 민요 《아리랑》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인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치면서도, 더우기 꺼져가는 민족의 숨결과 함께 수난의 소용돌이속에 파묻힐번 하면서도 이 노래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민들속에서 구전되게 된것은 당대 사회의 시대상과 민족정서를 인민적견지에서 진실하게 담았기때문이리라.

노래는 착취사회에서 당하는 억울한 우리 인민의 처지를 떠나가고 흩어지고 갈라지는 가슴아픈 리별을 통해 형상하고있다. 돌이켜보면 기나긴 세월 우리 인민은 아리랑전설의 주인공들이였다.

망국노의 설분을 터치기도 하였던 우리 인민의 아리랑민요들에서 한탄과 눈물의 정서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것은 언제부터였던가.

항일의 전구에서 《아리랑》이 울린 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아리랑의 주인공들은 투사, 혁명가로 자라났다. 그들이 부른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는 《아리랑》의 곡조를 타고 온 민족을 조국해방성전에로 부르며 삼천리에 울려퍼졌다.

강원도 법동군 통포땅에 오늘도 메아리치는 한편의 노래가 있다.

미제를 무찌르는 성전에서 용맹을 떨친 영웅전사들을 만나주신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을 어서 가세라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을 담아 친히 부르신 노래,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조국의 산과 들에 메아리친 노래의 아리랑 구절들은 승리의 새봄을 부르는 아리랑, 새 조선의 아리랑으로 높이 울리였으며 전승의 축포성으로 이어졌다.

아리랑민족이 망국노의 신세를 한탄하던 그 세월은 영영 지나갔다.

로동당시대의 아리랑민요들에는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속에 꽃피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반영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아리랑》은 20세기 문예부흥을 장식하는데 자랑스럽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선군시대를 찬양하고 인민의 긍지와 존엄을 구가한 《철령아리랑》, 《군민아리랑》, 《통일아리랑》, 《강성부흥아리랑》은 아리랑민요의 새로운 풍격을 창조하였다.

선군의 아리랑은 부흥과 번영의 미래를 부르는 우리 인민의 정서였다.

김일성민족의 넋과 기상, 창창한 미래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

유순하고 부드러운 《아리랑》의 선률은 망국의 비분으로 떨기도 하고 태양을 맞이하는 환희와 격정을 터치기도 하며 강성부흥할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격조높이 울리였다.

눈물의 아리랑으로부터 행복과 승리, 강성번영의 아리랑에로 이어불러보는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것이 있었다.

우리에게 노래는 얼마나 많고 명곡 또한 그 얼마인가.

유구한 력사속에서 형성된 우리 인민의 민족성과 감정정서를 귀중히 여기시며 민족음악유산들을 사회주의적내용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민요 《아리랑》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곡중의 명곡으로, 인류공동의 재보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그 이름도 유정한 우리의 민요 《아리랑》은 민족의 노래로 길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 중앙위원회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까히라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각하

나는 최근 리비아에서 랍치되였던 21명의 에짚트인들이 테로분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온갖 형태의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번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에짚트인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안전과 안정, 민족적단합을 수호하기 위한 친선적인 에짚트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2월 18일 평 양

공동구호에 맥박치고있는 자주의 신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이 어려있는 이 글발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관통되여있는것도 바로 투철한 자주의 신념을 간직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당이 제시하는 구호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목표와 방향, 과업과 방도가 명확히 반영되여있다. 따라서 당의 구호는 사람들에게 삶과 투쟁의 좌표를 어디에 정하여야 하는가를 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동구호에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비껴있다.

우리 당과 조국의 70년력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가장 긍지높이 자부하는것은 바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항로를 따라 곧바로 걸어온것이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시련은 겹쌓이고 적대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도 끈질겼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주의 신념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가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것은 력사의 기적으로 빛나고있다. 현실은 투철한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데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백두의 행군길, 이것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 우리 혁명의 진군로이다.

공동구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자!》라고 지적되여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설데 대한 문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에는 주체의 기치높이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자주적신념의 기둥을 더욱더 억척같이 세워주는 여기에 공동구호의 비상한 생활력이 있다.

공동구호에는 또한 선군의 위력으로 반제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이 반영되여있다.

반제계급투쟁의지는 견결한 자주정신의 발현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원쑤들과의 대결에서 공포와 환상, 타협과 양보는 굴욕과 수치, 민족수난으로 이어진다는것이 력사가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으며 우리를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초강경대응으로 맞서나가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기질이다. 《모두다 당의 병진로선관철에로!》,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죽탕쳐버리라!》,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민대단결의 위력, 전민항쟁의 위력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자!》, 이 구호들에는 우리 당의 반제계급투쟁의지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선군의 기치높이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백두산대국의 필승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공동구호에는 또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식으로 이 땅우에 강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결심이 깃들어있다.

남의 힘을 바라고 남의 식을 본따서는 절대로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자력갱생, 여기에 민족번영의 지름길이 있다.

공동구호에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데 대한 문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에는 무슨 일이나 우리 식대로 설계하고 창조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공동구호는 오늘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불, 자력갱생의 불을 세차게 지펴주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필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해방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윤철희

절세위인의 불멸의 당사상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2월19일로작발표일에 즈음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근본담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3(1974)년 2월 19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길을 명확히 밝힌 불멸의 총서이며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우리 당과 혁명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력사적지위와 구성체계,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로작에는 희세의 위인이시며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고있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주체의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으로 빛내이시고 선군조선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전도를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날이 갈수록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된 잊을수 없는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이 명실공히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활동하는 수령의 당으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립된 사상적순결체로 존엄떨치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력사적분수령으로 된다.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선혁명을 기어이 완수하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를 과시한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이 더 높이 떨쳐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되여온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는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를 비롯한 불후의 로작들에도 어려있고 온 나라에 훌륭하게 꾸려진 사상교양거점들에도 깃들어있다.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전체 군대와 인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이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으며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삼고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과 조국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존함, 높으신 권위와 더불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가는 길이 있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일심단결의 기초는 수령의 혁명사상이고 단결의 공고성은 사상적일색화에 있다.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속된 일심단결은 천만대적도 물리치고 온갖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게 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우리가 긍지높이 자부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가장 공고한 사상의지적통일체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고있다. 천만이 생각을 해도 당의 사상의도대로 생각하고 걸음을 걸어도 당에서 가리키는 한길로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곧바로 걸으며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는것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하나의 사상과 신념으로 뭉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은 무수한 시련의 언덕들을 넘으며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에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세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적결속과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부흥의 령마루에로 폭풍쳐나아가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일심단결로 하여 우리 조국땅우에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자랑찬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위대한 혼연일체는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 맹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에 의하여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정치사상강국의 기상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갈것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사상의 대결, 정신력의 대결이다.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굳건히 다지는 여기에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꿋꿋이 지키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 길이 있다.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채 말아먹게 된다는것이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격파분쇄하기 위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열쇠는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종국적멸망을 선고할 최강의 무기도 혁명사상과 혁명신념으로 만장약된 무적의 백두산총대이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결정적으로 압도하며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추동력도 다름아닌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불굴의 정신력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강경보루로 자랑떨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치면서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고 악랄한 경제봉쇄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려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자는것이 사회주의수호자로서의 높은 사명감을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지금 미제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면서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의 그 어떤 대결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정치사상적힘으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고야말것이다.

김 철 학

주체의 사상론은 최후승리의 위력한 보검이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1돐을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장군님의 불멸의 당사상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세계가 우러르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이 태여난 조국에서 수십성상 그 위대한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광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사상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는 황해북도당위원회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

기자: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우리 당사상건설의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업적은 2월 19일과 더불어 찬란히 빛나고있다.

책임비서 박대덕: 옳은 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를 소집하시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신 때로부터 41돐이 되는 날을 맞고보니 장군님의 당사상건설업적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더욱 뜨거워진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당사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상사업에 기울여오신 심혈과 로고를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진정 우리 장군님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을 안아오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비서 김창룡: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은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퍼뜨리며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적들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까지 거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발광하고있으며 인간추물들을 내세워 우리를 모독하는 삐라를 살포하도록 부추기고있다.

돌이켜보면 적들은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질 때 우리도 쉽게 《붕괴》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다. 어리석은 망상이였다. 원쑤들이 《붕괴설》을 내돌리며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였지만 천만군민이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우리는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지금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우리의 사상진지는 금성철벽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불패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어버이장군님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부장 김승철: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당사상건설력사는 끝없이 흐르고있으며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다.

지난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우리 당사상건설의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력사적리정표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연설을 높이 받들고 전당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상공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기자: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도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사상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책임비서 박대덕: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였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당정책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대고조실적으로 나타나도록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댔다.

지난해에 그처럼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 례성강청년4호발전소건설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경제사업에서 우리 도가 이룩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사상론의 진리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비서 김창룡: 올해의 전투과업도 방대하다. 그러나 신심은 확고하다. 혁명적사상공세를 벌려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도안의 모든 당조직들의 잡도리가 대단히 좋다.

은파군당위원회의 실례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곳 군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첫 전투에서부터 사상공세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책임일군들을 선두로 하여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들에 달려나가 농업근로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도 하고 걸린 문제도 적극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 정치사업의 위력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비롯한 영농전투에서 전례없던 실적을 낳았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은파군을 비롯한 사상공세의 앞장에 선 단위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도육아원과 애육원건설장,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장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활화산같이 타오르게 하고있다.

부장 김승철: 우리는 최후승리의 위력한 보검인 주체의 사상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더욱 힘있게 벌려 누구나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게 하겠다.

기자: 불같은 그 결의가 반드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본사기자 리 정 수

항일유격대나팔수

◇ 전당의 사상일군들의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구호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통하여 또다시 심장깊이 새긴 당선전일군들이 맹렬한 사상공세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혁신의 동음 드높은 공장구내길에는 로동계급의 심장을 두드리는 격동적인 호소의 글발이 나붙고 거름짐을 지고 포전으로 향하는 대오앞에서는 선전일군의 격식없는 선동의 목소리가 울린다.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당사상전선의 들끓는 분위기는 혁명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를 쨍쨍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던 1970년대를 방불케 한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사상일군들을 진격의 나팔수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가슴깊이 새겨집니다.》

진격의 나팔수!

그것은 사상사업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여기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방식이 낳은 고귀한 대명사이다.

◇ 항일유격대나팔수는 당사상일군들의 삶과 투쟁의 거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선군혁명총진군에서 진격의 나팔수가 되고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합니다.》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랑랑히 울려퍼지던 항일유격대나팔소리는 전진하는 대오에 활력을 주고 인민들에게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승리의 개가였다. 희망의 새봄을 그려주는 그 메아리를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였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사령관동지를 따라 최악의 역경을 웃으며 헤칠수 있었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항일전장을 진감하던 진격의 나팔소리가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더 높이 울려퍼져야 할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사상일군들을 진격의 나팔수의 위치에 세워주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자기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시기에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당시)이 혁명군가의 뢰성을 우렁차게 울리며 최고사령부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고 기자, 언론인들에게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가 될데 대한 믿음어린 서한도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당사상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를 자신의 삶과 투쟁의 거울로 삼고 대고조격전장들에서 대중을 비약과 혁신에로 부르는 진격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려왔다.

◇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자, 이것은 당사상일군들이 영원히 간직해야 할 삶과 투쟁의 표대이다.

당사상전선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당사상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당사상일군들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맨 앞장에서 받드는 전위투사가 되고 천만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대중과 혈연적뉴대를 맺고 민심을 주도해나간 항일유격대선전일군들처럼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집단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대중적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피는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한다. 겉모양은 소박하고 수수해도 심장의 고동은 언제나 당의 뜻으로 높뛰고 온몸이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당사상일군들이여,

우리 당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꺼지지 않는 홰불이 되고 우렁찬 나팔이 되자!

명중률을 높인 비결

강서구역 잠진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일반적인 학습제강이나 강연제강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대상의 수준과 준비정도,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한번을 해도 명중포화를!

이것은 사상사업을 하는 당일군들 누구나 리상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잘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형식과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그 실효성, 명중률이 꼭 같은것은 아니다.

무엇때문인가.

강서구역 잠진리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자.

지난해 봄이였다.

농산제11작업반의 모내기실적이 높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리당비서 김종남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한 강습도 조직하고 해설사업도 적지않게 한 결과 많은 작업반들에서 일본새가 달라져가고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다름없이 뒤자리에 서있는 농산제11작업반의 실태는 사상교양사업의 실효가 같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당정책해설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한 후과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통하여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벌리기로 하였다.

여기서 리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점을 둔것은 공연의 내용이였다. 지난 시기처럼 기성작품이나 몇종목의 노래 등으로 공연을 준비한다면 큰 실효를 거둘수 없을것이라고 보았던것이다.

리당비서는 농산제11작업반의 농장원들과 진지한 담화를 나누어보았다. 그 과정에 그들의 수준과 심리, 작업반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공연에 잘 반영하도록 하였다. 자기자신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종목선택으로부터 극작품의 종자와 구성, 내용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었다.

며칠후 농산제11작업반의 전투장에 기동예술선동대의 화선식무대가 펼쳐졌다.

농장원들의 심금을 제일 울린것은 제창이야기 《분조농사 꽃피우세》였다.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데서 나타나는 편향들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생동한 세부를 통해 깨우쳐주는 짧은 극들이 노래사이에 펼쳐질 때마다 농장원들이 받는 충격은 컸다. 무대우에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의 생활이 펼쳐진것같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며 신심에 넘쳐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품을 들여 준비한 공연의 실효는 대단했다. 그것은 그후 영농실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 시기 터밭농사에 재미를 붙이고 왼심을 쓰던 일부 농장원들도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깨닫고 농장일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누구라없이 책임성이 높아져 모든 밭들을 꽃밭처럼 알뜰히 가꾸었다. 결과 작업반은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으며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이곳 리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찾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상사업에서 같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해도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표준할 때 명중률을 높일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북소리와 기적소리

평양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에서

북소리가 기적소리보다 크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평양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사업을 통하여 기적소리보다 더 위력한 북소리가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기관차대앞에 내연기관차 209호를 빨리 살려내야 할 긴급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수리중대 기관작업반원들이 전투에 진입하였다. 지난밤에 수리선에 들어온 기관차였다. 하지만 전투는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천정기중기가 멎어섰던것이다.

불안과 초조감이 어린 시선들이 작업반장 박수철동무의 얼굴로 향했다. 그럴만도 하였다. 기관차의 부분품들은 작은것이라고 해도 보통 200~300kg이 넘는 중량물들이였다. 그런데다 기관차안의 작업공간도 좁은데 기중기없이 어떻게 기관수리를 하겠는가 하는 걱정들이 앞섰던것이다.

박수철작업반장도 기관차대가 정한 시간까지 수리를 끝낸다는것은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날줄 어찌 알았으랴.

수리전투장에 방송선전차를 앞세우고 기동예술선동대가 나타나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울리기 시작했다.

작업반원들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경제선동의 북소리와 함께 전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팔소리, 북소리, 노래소리와 함께 마이크를 잡은 초급당일군의 힘있는 전투적호소가 작업반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던것이다.

작업반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인력으로 천정기중기를 대신하였고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완강하게 뚫고나가며 수리전투를 다그쳤다.

경제선동의 북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모든 작업반원들이 치차처럼 맞물려 전투를 벌렸다.

드디여 기적이 일어났다. 단 하루만에 수리전투가 끝난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현실앞에서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기적이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그들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쪽으로 향하였다.

…

이것은 평양기관차대 수리중대 전투장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투쟁의 하루하루는 북소리와 하나로 이어져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최룡훈, 장정용동무를 비롯한 평양기관차대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전투장들을 경제선동의 불도가니로 전환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기관차대를 령도업적단위답게 훌륭히 꾸리고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자축하모임, 방송선전차활동,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드세게 벌려 종업원들의 심장마다에 투쟁과 혁신의 불을 달아주었다.

바로 그 사상공세의 북소리는 그대로 증송의 기적소리로 이어졌다.

올해에 들어와 기관차대는 1월 짐나르기계획을 125%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2월에 들어와서도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우리는 대고조전역으로 출발하는 기관차들의 기적소리를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그렇다.

사상공세의 북소리가 증송의 기적소리를 낳았다. 그러니 그 북소리의 위력은 얼마나 큰것인가.

본사기자 채 인 철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평양역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

당의 품속에서 온 나라 인민이 즐겁게 보내는 우리의 설명절

설명절경축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공연 진행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설명절경축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공연이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설명절을 맞이한 관람자들의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혼성3중창 《종소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아동중창 《복많이 받으세요》, 남성독창 《우리 앞날 밝다》,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 《내 심장의 목소리》, 《사랑하시라》, 녀성독창 《인민의 환희》,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고백》, 남성4중창 《곧바로》, 혼성4중창 《처녀의 노래》, 녀성6중창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고 우리 조국은 백두산대국으로 빛을 뿌리고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은 무궁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곡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녀성민요독창 《바다 만풍가》, 《철령아래 사과바다》, 장새납독주 《그네뛰는 처녀》, 남성독창 《황금산타령》, 《세월이야 가보라지》는 짙은 민족적정서로 하여 명절을 맞이한 관람자들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특색있는 예술적형상과 관중과의 열정적인 교감으로 장내를 들썩이게 한 공연무대에는 재청곡들이 련이어 올랐으며 악단의 높은 형상력을 보여주는 세계명곡들도 연주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여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과시한 공연은 대중창 《불타는 소원》으로 끝났다.

높은 사상예술성과 세련된 예술적기량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은 공연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혁명적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하늘높이 올라라 우리의 희망싣고

뜻깊은 설명절을 맞은 대홍단벌의 제대군인마을들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설명절날 대홍단군의 그 어디를 가도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볼수 있다. 군소재지의 국수집에서 대홍단의 특산인 농마국수를 봉사받으며 기뻐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흐뭇하고 명절분위기로 단장된 소재지의 모습도 이채롭다. 하지만 농장마을들에서 학생소년들이 겨끔내기로 진행하는 민속놀이가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연띄우기와 줄넘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에 여념이 없는 그들속에는 홍암농장 리기선동무의 딸들인 홍단이와 행복이도 있고 리강선동무의 딸 효은이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세상에 태여나 첫걸음마를 떼던 일이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어엿한 중학생으로 성장한 그들, 감자농사를 잘 지어 장군님께 기쁨드린 부모들의 뒤를 이어 대홍단벌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주인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그들의 미더운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해준다.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된 대홍단벌의 당당한 주인, 앞날의 과학농사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부푸는 그 희망을 전하려는가 저 하늘에 뜬 연들은 높이도 날으고있다.

희망넘친 아이들의 모습에 더욱 흥하고 환희로울 대홍단의 래일이 어려오는것만 같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 철 주

수도의 거리에 넘치는 민족의 향취, 희열과 랑만

설명절을 맞은 평양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명절날이나 쉬는 날에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장려하여야 합니다.》

수도의 거리에 민족의 향취 넘치는 이채로운 설명절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곳곳에 펼쳐진 민속놀이장들마다에는 솔대문과 눈사람, 축등, 오색기, 대형그림직판판, 단심줄 등 여러가지 직관물과 가장물이 전개되여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19일 김일성광장에서는 뜻깊은 설명절을 맞으며 전국학생소년들의 연띄우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김일성광장은 이른아침부터 각도에서 선발되여온 학생들과 시안의 학생들로 흥성거리였다.

이날 진행된 경기는 연집단띄우기경기, 연높이띄우기경기, 연재주경기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경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은 민족경기를 장려할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지난 시기 련마해온 높은 기술들을 남김없이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자기들의 푸른 꿈을 담아 창공높이 연을 띄우는 학생소년들의 가슴마다에는 부강조국건설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날 굳은 결의들이 넘쳐있었다.

이날 김일성광장과 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곳들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의 여러가지 민속놀이들이 이채롭게 진행되였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민속놀이장소마다에서는 연띄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윷놀이, 무릎싸움, 수박따기, 꼬리잡기, 오사리던지기, 기마전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들이 이채롭게 진행되였다.

민속놀이를 적극 장려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시안의 학생소년들은 이날 여러가지 민속놀이들을 진행하면서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굳은 결의들에 넘쳐있었다.

이날 오전 청춘거리 체육촌 중경기관에서는 시안의 구역, 군씨름결승경기가 진행되였다.

평양시안의 체육부문 일군들과 구역, 군당책임비서들, 인민위원장들을 비롯하여 시안의 일군들과 각 구역 응원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초부터 조별련맹전의 방법으로 예선과 준결승경기를 거쳐 올라온 팀들사이에 3, 4등과 1, 2등을 가르는 경기들이 진행되였다.

결승경기는 유치원부류, 소학교부류, 초급, 고급중학교부류, 로동자부류, 농민부류, 사무원부류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경기는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자기 구역의 명예를 걸고 결승경기에까지 올라온 모든 선수들은 자기들의 육체적준비와 씨름기술들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유치원부류 결승경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소년장수들처럼 씩씩하게 경기장에 나와 들어올리기와 안걸이로 훌륭한 씨름솜씨를 보여주는 어린이들에게 관중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

이날 만경대구역이 단체종합 1등을, 모란봉구역이 단체종합 2등을, 평천구역이 단체종합 3등을 하였다.

경기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되였다.

1등을 쟁취한 만경대구역에 황소와 시상품이 수여되였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경기를 널리 장려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씨름을 비롯한 민족경기들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설명절을 맞은 수도시민들을 위한 봉사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시안의 식당들에서는 오랜 세월을 이어오며 계승발전되여온 전통적인 민족음식들을 봉사하여 식당을 찾는 시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이와 함께 시안의 곳곳에 차려놓은 군밤, 군고구마매대들에서의 구수한 냄새가 민족의 향기로 풍기여 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 수 복

—김일성광장에서— —개선문광장에서— —청춘거리 체육촌 중경기관에서—

순결한 그 마음 꽃송이에 담아

설명절의 아침 신의주시 역전동 70인민반 차성애동무의 가정에서는 송이송이 향기그윽한 꽃들로 삼가 꽃바구니를 엮어갔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저녁이면 저녁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삼가 우러르며 하루일을 시작하고 하루일을 총화짓고있는 이들이다.

고결한 그 마음안고 지난 기간 이 가정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쳤다.

지난해 신의주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차성애동무는 온 가정의 마음담아 지원물자를 마련하였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는 사업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도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지난 8년동안 한 특류영예군인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어 온 인민반원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은 이들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만 불타고있다.

하기에 뜻깊은 설명절 아침 백영식, 차성애부부와 신의주고등예술전문학교 학생인 딸 백경예동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맹세를 담아 아름답고 향기그윽한 꽃송이들로 꽃바구니를 정히 엮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기쁨속에 보낸 즐거운 하루

설명절을 맞은 원산시 포하동지구는 아침부터 법석이였다.

앞서달리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 운동복을 입은 세대주들과 북이며 꽹과리를 손에 든 녀인들이 정답게 설인사를 나누며 배구장으로 향하고있었다. 포하동의 35인민반과 36인민반사이에 배구경기가 진행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생활을 락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하자면 명절이나 쉬는 날, 퇴근후의 생활을 다양하고 명랑하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구장에는 35인민반원들이 먼저 나와있었다. 준비운동을 하는 세대주들의 얼굴마다에 만만한 배심이 어려있었다. 그중에서도 나이많은 한 선수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60대의 심의완동무였다. 무척 젊어보인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는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는 이 좋은 제도에서 어찌 젊어지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이어 36인민반원들이 북을 두드리며 기세충천하여 배구장에 들어섰다. 경기는 해보나마나라는 자신심에 넘쳐있는 그들이였다.

배구경기는 처음부터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1회전 경기에서 멋진 강타로 팀의 승리에 기여한 35인민반의 박영남선수는 원산화학공장의 이름난 혁신자이다. 그는 일요일과 명절때마다 진행되군 하는 군중체육활동은 인민반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응원열기가 이만저만 아니였다. 자기 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안해와 아이들의 함성에 배구장은 한껏 달아올랐다.

36인민반의 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2회전과 3회전에서는 박광춘, 로철수동무들이 맵짠 타격과 살짝공으로 련속 점수를 올렸다.

한회전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팀 선수들을 고무격려하는 안해와 자식들의 모습으로 하여 배구장에 넘쳐나는 웃음소리는 그칠줄 몰랐다. 그 모습이 이채로왔던지 지나가던 길손들도 걸음을 멈추고 와—와— 목소리를 높이였다. 설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는 희열과 랑만에 넘친 배구경기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민반장들인 장기춘, 김광옥동무들과 잠시 자리를 같이하였다.

장기춘동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기쁨과 랑만에 넘친 설명절의 배구경기입니까. 우리들은 오늘의 이 기세로 인민반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서도 동적으로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자기도 같은 심정이라고 김광옥동무도 한마디 하였다.

《락천적인 생활을 떠나 우리 어찌 희망찬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배구장에서 한껏 달아오른 희열은 민속놀이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아이들과 녀인들의 웃음소리높은 윷놀이경기도 볼만하였지만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어깨성을 쌓고 지켜보는 장기경기 또한 인기였다.

참으로 즐거운 설명절에 펼쳐진 화목한 대가정의 모습이였다.

원산시 포하동지구에 펼쳐진 류다른 풍경은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생활의 축도이라는 생각을 안고 우리는 이곳 인민반원들과 헤여졌다.

특파기자

우리 사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륜리

로병의 친자식들

평성시 중덕동 57인민반 최준규로인의 가정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충실하여온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것은 후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즐거운 설명절 아침 평성시 중덕동 57인민반에서 사는 전쟁로병 최준규로인의 집으로는 방구들이 좁다하게 사람들이 찾아왔다. 평성시 중덕동사무소 일군들과 평안남도인민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조영숙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이였다.

그들을 맞이하는 전쟁로병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준규로인은 의용군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격전장에서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으나 최준규로인은 수십년세월 일가친척들의 생사도 모르고 살아오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에게는 친아들딸과도 같은 숱한 자식들이 있다. 설명절의 이 아침 남먼저 찾아온 중덕동의 일군들과 도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도 전쟁로병에게 있어서 친자식들이나 다름없었다.

중덕동사무소 초급당비서 최영숙동무는 오래전부터 전쟁로병의 생활을 친딸의 심정으로 각근히 돌봐주고있다. 그는 때없이 로인의 집을 찾아가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없는가 세세히 알아보고 나이많은 로인이 입맛을 잃을세라 부식물에 이르기까지 늘 왼심을 쓰고있다. 도인민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조영숙동무와 의료일군들은 환자치료로 바쁜 속에서도 전쟁로병의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몸보신에 좋은 보양제도 안겨주며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러니 최준규로인의 말대로 이들이 과연 전쟁로병의 친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이 좋은 제도에서 건강하여 오래오래 앉아있어야 한다는 이들의 이야기에 전쟁로병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어머니당을 위해 맡은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였다.

이 나라 전쟁로병들이 당과 수령의 부름을 받들고 피로써 지켜낸 조국, 그 아들딸들이 전쟁로병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 아낌없이 바쳐가고있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그렇듯 굳건한것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리 혁 철

설명절을 맞이하여 제자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안고 찾아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종건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서로의 뜻과 정을 나누며

설명절의 밤 항구구역 하비석동 37인민반 공옥분동무의 가정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이웃들의 존경을 받고있는 이 가정에서는 지금 네식구가 모여앉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세번째로 다시 찾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군관인 세대주 한철진동무가 안해에게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물자를 준비해가지고 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자고 자기의 속생각을 내비치였다. 그 말에 안해인 공옥분동무는 청년돌격대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섰다.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딸 진옥이가 정히 간수하고있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지원증서들이며 전국아동문학현상모집에 당선되여 받은 상장들을 펼쳐보이며 자기도 발전소건설장에 함께 가겠다고 당돌하게 말하였다. 아들 진성이도 누나에게 뒤질세라 전국청소년학생들의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에 참가했던 심정을 편지에 담아 돌격대형님, 누나들에게 전하겠다고 하였다. 온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

내 나라의 설명절의 밤은 당이 부르는 길에서 뜻과 정을 함께 하며 이렇게 깊어갔다.

특파기자 주 창 선

복무자의 긍지

청진려객차사업소 윤전사 변봉옥동무

설명절 아침이였다.

명절분위기로 장식된 북방의 항구도시 청진시의 거리를 누비며 한대의 무궤도전차가 미끄러지듯 정류소에 와 멎는다.

손님들이 저저마다 운전사에게 인사를 건넨다.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운전사어머니, 저의 인사도 받아주십시오.》

한 소년이 안겨주는 꽃다발을 받아안은 운전사 변봉옥동무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여오른다. 따뜻한 축하의 인사말속에, 그윽한 꽃향기속에 무궤도전차안은 한가정, 한식솔이 된듯 더욱 환해진다.

운전사의 가슴속에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는듯 인상은 더욱 밝아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온 도시가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인 설명절에도 남먼저 집을 나서야 하고 때로 밤이 퍽 깊어서야 퇴근길에 올라야 하는것이 려객운수부문의 운전사들이다.

하다면 늘 그렇게 생활해오고있다는 변봉옥동무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무엇이겠는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복받은 이 땅에서 다름아닌 인민을 위한 복무자로 산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다.

손님들의 퇴근을 보장한 깊은 밤에도 다음날 출근길에 오를 손님들을 위해 전차수리정비로 그가 지새운 밤은 그 얼마였던가.

힘들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운전사어머니라 불러주는 시민들의 정다운 부름에서, 그들의 행복넘친 밝은 웃음에서 인민의 복무자로 한생을 빛내여갈 결의를 안고 변봉옥동무는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살아오고있다.

한껏 높뛰는 흥분된 목소리로 변봉옥동무가 손님들을 향해 한마디 한다.

《꼬마동무, 고마와요. 모두들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행복넘친 거리로 기운차게 차를 몰아간다.

오고가는 그 말속에 우리 생활의 아름다운 륜리가 그대로 비껴있다. 서로서로 위해주며 모두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태양은 영원히 빛난다

2015년 2월 16일,

이날은 주체위업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대원수각하의 탄생 73돐이 되는 날이다. 인류공동의 명절로 해마다 성대히 경축해온 날이지만 각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그이를 경건히 추모한 그 나날의 여운을 안고 맞이하는 탄생일이여서 올해는 지난날에 대한 추억을 더더욱 뜨겁게 불러준다.

근 70년의 빛나는 생애에 그 어느 시대의 위인들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김정일각하께서 인류의 마음속에 남기신것은 영원한 태양의 영상이다.

김정일대원수각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 걸어온 인생행로에서 새겨안은 위대한 태양의 진리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발표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나에게 때아닌 정서를 안겨주며 심장을 울려주는 노래가 있다.

명곡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딸리아의 민요 《오 쏠레 미오(오 나의 태양)》이다. 사실 련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터치고있지만 들을수록 우리 이딸리아인들의 정열적인 태양숭배의 감정정서를 새겨주는 노래이다. 만물에 빛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을 떠나서는 살수 없기에 인간은 누구나 태양을 숭상하며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사랑을 태양에 비유하여 격조높이 구가하는것이다.

정녕 태양이야말로 인간의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이다.

하지만 내가 숭배하는 태양은 장구한 력사를 새겨온 이 행성에서 처음으로 사람중심의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고 진정한 인간사랑의 정치로 인류가 바라던 리상사회를 건설하시여 만인의 열렬한 칭송을 받고계시는 동방조선의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이시다.

나의 어머니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뵙고 한 뜻깊은 말이 있다.

평양방문나날에는 물론 그후에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두고 어머니는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그분이시야말로 이 세상 모든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구세주이고 태양이시라고 눈물겹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동방조선은 진정한 태양의 나라, 꿈속에서 그려본 황홀한 락원이라고 하였다.

이웃들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바쳐온 정직하고 고지식한 나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죽어서 가게 될 《신의 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관념으로 일생을 살아온 독실한 카톨릭교신자였다.

한생을 신앙심에 의지하여 살아온 어머니가 김일성주석각하는 이 세상의 구세주이고 태양이시라고 자기의 진심을 터친것이다. 어머니는 환상적인 신앙의 개념을 초월하여 현실적인 정신적지주를 찾았던것이다.

세계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1602년에 우리 이딸리아의 작가 깜빠넬라가 창작한 공상소설 《태양의 도시》에 대하여 알것이다.

누구나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리상향에 대한 그 시기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소설은 1516년에 영국의 모어가 쓴 《유토피어》에 이어 당대 사회의 인기를 모았다.

《태양의 도시》가 발표되여 400여년, 공상적인 《유토피어》가 나온 때로부터는 근 500년세월이 흐르도록 인간이 동경해온 리상향, 그 리상향을 인류는 수세기가 지난 오늘 현실로 목격하고있다.

주체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지난 세기초까지만 하여도 조선은 불우한 일제의 식민지였다.

비운이 드리웠던 조선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것은 민족의 아들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각하를 령도자로 모신 그때부터였다.

많은 독자들은 인류가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안고 격정속에 터치는 《김일성》이라는 그이의 존함에 어떤 사연이 담겨져있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나는 이딸리아의 《깔렌다리오 델 뽀쁠로》출판사에서 출판한 《김일성전》을 비롯하여 주석각하의 불멸의 생애와 혁명활동을 수록한 여러 전기와 략사를 탐독하면서 그이의 존함자체가 태양을 뜻함을 비로소 알았다.

일제의 발굽밑에 신음하는 민족을 구원할 태양이 되여주실것을 념원하여 조선인민이 지어올린 존함이라고 한다.

그 태양의 존함을 지니시고 김일성주석각하는 반세기의 정치경륜을 새기시였다. 그것도 10대에 시작하신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신것을 내놓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후 정치력사만 50년을 헤아린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주석각하는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신 세계정치의 원로로 오늘도 영생하시는것인가.

만물이 태양을 따르는것은 빛때문이며 만인이 위인을 우러르는것은 사상때문이다.

벌써 10대에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주의 사상, 주체의 리념을 지니고계신 주석각하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이라는 진정한 인간중심의 사상, 만인이 공감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그때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워주신분이 김일성주석각하이시다.

일찌기 한 철학가는 하나의 위대한 사상으로 거대한 우주를 채울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진보적인류의 투쟁과 전진의 앞길을 밝히는 휘황한 등대로, 《주체》라는 말은 오직 조선말로써만 부를수 있는 자주시대의 공용어로 되고있다.

참으로 김일성주석각하는 존함그대로 태양의 한생을 이어오신 20세기의 위인이시였다.

나는 지금도 1975년 첫 조선방문의 나날에 김일성주석각하의 접견을 받던 때의 일을 잊을수 없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나는 비록 당신을 오늘 처음 만났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감을 느낀다고 하시며 뜨겁게 포옹해주시던 그이의 영상은 그대로 태양의 모습이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그분께 끌려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그때 현시대는 자주성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사람답게 살수 없다고 하시며 시대의 특징과 인간의 본성적요구,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일순간에 세상만사를 옳게 가려볼수 있는 철리를 깨우쳐주시는 가르치심이였다.

나는 첫 접견에서 벌써 주석각하께 완전히 매혹되였음을 숨기지 않는다.

오랜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딸리아에서 나서자란 나는 유럽중심주의자라고 할만큼 남다른 자존심과 주견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였다. 무엇인가 사회와 정의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열혈의 그 시절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과 나라들의 적지 않은 고위인물들과 대상하면서도 언제 한번 주저하거나 자존심을 굽힌적이 없었다. 하지만 김일성주석각하를 만나뵙는 첫 순간에 나는 어머니가 자주 외우시던 하늘의 성인을 대하는듯 한 느낌을 강렬하게 받아안았다.

조선의 성산 백두산의 기상을 지닌 천출위인의 용모, 강산을 진감시키는 천하무적장군의 음성, 만민을 매혹시키는 자애로운 미소…

정녕 그분은 태양이시였다.

김일성주석각하이시야말로 사상도 령도도 인품도 업적도 태양으로밖에 달리는 칭송할수 없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웅중의 영웅이시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20세기에 인류는 김일성주석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을 맞이하였다.

동방조선의 김정일각하이시다.

세계적인 정치정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0세기 90년대에 김정일각하께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을 위한 담보서한을 보낸데 대하여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정전상태에 있는 적대관계의 작은 나라 조선과 《초대국》이라는 미국사이에 일어난 이 중대사변에 세계가 끓었다. 그때 미국의 어느 한 연구소의 고위연구원은 한 월간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다.

《오늘날 세계의 존경을 받고계시는 김정일령도자는 어떤 형의 위인이신가.

김일성주석형의 위인—김정일령도자, 이것이 바로 내가 찾은 답이다.

김일성주석이 어떤 위인이시였는가. 구태여 그것을 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만약 그러한 론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직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김일성주석의 접견을 받은 지미 카터의 격찬을 다시한번 인용하는것이 적중하리라고 본다.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죠지 워싱톤,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대통령들을 모두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다.〉라고 카터는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김일성주석은 이 세대통령을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다. 이것은 카터의 개인적인 격찬에 앞서 20세기의 칭송이다.

김정일령도자는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대위인이신 김일성주석형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형의 위인 김정일령도자, 정녕 그분은 신비한 두뇌와 담력, 태양의 인덕과 함께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겸비하지 못했던 도덕의리를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위인중의 대위인이시다.》

물론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이 글에서 다 피력할수는 없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특별히 강조하고싶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것이 김정일각하의 모든 사색과 활동, 실천의 기초이며 핵이라는것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는것이 각하의 구호이고 사람을 믿되 진정으로 믿으며 영원히 믿어야 한다는것이 각하의 뜻이며 천하를 얻으려면 도량이 넓어야 한다는것이 각하의 의지이다.

각하의 이런 사랑의 정치,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에 감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눈물겹도록 가슴뜨거운 사연을 다시금 적으려고 한다.

1997년 정초에 또다시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그즈음 천일곱번째 생일을 맞는 나를 생각하시여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축하연을 마련해주시고 친히 생일선물까지 보내주시였다.

그 선물은 나의 어머니의 조각상이였다. 조각상에는 《김정일. 1997. 1》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어머니의 조각상을 받아안고 나는 북받치는 격정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평시의 그 소박하고 인자한 모습 그대로 생동하게 형상된 조각상은 분명 살아있는 어머니의 정다운 모습이였다.

이렇게 환생한 어머니의 모습을 뜻깊게도 평양에서 맞는 나의 생일날에 보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정녕 그처럼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신 김정일각하의 인정의 세계는 따사로운 해빛이 되여 나의 마음속에 비껴있던 한점의 그늘까지도 말끔히 가셔주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가 누구이든 끝까지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분이 김정일각하이시였다.

바로 그런분이시기에 2010년 1월 27일에도 친히 조선로동당의 일군을 머나먼 우리 이딸리아에 파견해주시여 이 발로리의 일흔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꽃바구니와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는 가슴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미력하게나마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협력해온 나를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김정일각하의 그 사랑에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 마음속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다.

한 이방인에 대하여 이럴진대 자기 인민과 민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긴 설명은 하지 않겠다.

김일성주석각하의 뜻을 이으신 김정일각하의 좌우명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민위천이다. 김정일각하는 인민을 하늘로, 스승으로 숭배하며 자신을 그 아들로, 충복으로 간주하는분이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심장에 안고계시였기에 각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조선로동당의 구호로 제시하시고 그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였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랑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신상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도 락관의 웃음으로 이겨가시며 눈보라세찬 천리밤길을 헤쳐가신 그런 령도자를 세상은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인민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의 태양은 분명 김정일각하이시다.

태양은 그 존재자체가 위대한것으로 하여 만민의 칭송을 받는것이다.

하기에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국제적인 대회합으로 성대히 진행된 주체사상세계대회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라는것을 온 세상에 정식 선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와 김정일대원수각하께서는 오늘도 생전의 모습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신다.

금수산태양궁전이야말로 위대한 인간태양의 성지이다.

태양의 성지처럼 숭엄하고 거룩한 성지는 이 하늘아래에는 없다.

나는 위대한 태양의 성지가 있는 평양을 30번도 넘게 찾았다. 그 누구도 나에게 동방조선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 찬란한 평양으로 향하고있다.

주체의 성스러운 태양이 빛나는 동방조선의 금수산태양궁전이야말로 태양숭배자들의 영원한 성지이며 끝없이 찾고찾는 심장의 순례지이다.

진정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진보적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변함없는 사랑과 정을 주시는 영원한 구세주이며 인간태양이시다.

2

나는 글의 두번째 체계의 서두를 꿈같은 사연을 전하는것으로 떼려고 한다.

이 글을 마무리지으려던 며칠전에 나는 뜻밖에도 조선의 수령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일흔다섯번째 생일을 맞는 나에게 보내주시는 축하의 말씀과 선물 그리고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전달받았다. 그때의 충격과 감동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최고령도자께서 이국의 평범한 인간에게 베푸신 은정에 대한 특례적인 소식에 나를 아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2015년 새해를 맞으며 김정은원수각하께 나의 진정을 담은 새해인사를 축하전보문으로 올렸었다. 그런데 김정은각하께서는 동방조선에서 머나먼 서방의 이딸리아에 조선로동당의 일군을 직접 보내시여 이 발로리의 일흔다섯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신것이다.

대원수님들께서 생전에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관심하신 발로리를 잊지 않는다고,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고 하신 그분의 가슴뜨거운 축하를 전달받으며 나는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누구나 감히 바랄수 없는 행복의 절정, 최상의 특전이 다름아닌 바로 나에게 차례진것이다.

조선에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나의 인생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이 아닐수 없다.

김일성주석각하로부터 시작되고 김정일각하에 의해 더욱 뜨거워진 이 발로리에 대한 위인들의 대해같은 사랑은 김정은각하에 의해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요즈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는다. 요점은 작은 나라 조선이 어떻게 되여 그토록 세계의 관심을 끄는가 하는것이고 특히는 그 나라의 령도자는 어떤분이신가 하는것이다.

서방세계에서 늘 보게 되는 집권자에 대한 불신, 나라의 시책과 대중의 요구사이의 불협화음같은것이 전혀 없는 조선에 대하여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들로서는 응당 가질수 있는 의문이다.

나는 먼저 언제인가 미국의 빌리 그라함 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후 기자에게서 《목사님은 왜 조선에 성경책을 전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을 상기하고저 한다.

《성서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담고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인간사랑이 국책으로 실시되고있다. 무상치료, 무료교육, 의식주에 대한 국가적책임, 이것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시고 실천하시는 국책이다.

조선인민들은 그분을 하느님처럼 받들고있었다. 이러한 나라에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인간천국이라는것이다. 유럽땅의 독실한 신자였던 나의 어머니의 말과 그리스도교계 보수파의 왕, 세계종교계의 거두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한 진실의 고백이 일맥상통하다.

그럴수밖에 없다. 비록 유럽과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과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조선을 방문한 그들이였지만 이 나라에서 찾은 답은 한가지였다.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지역과 나라들에서는 당국의 그릇된 시책을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으며 극심해지는 정치적분쟁이 동족간의 무장충돌로까지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히우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이와는 전혀 다른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의 사회제도를 대하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분이신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그에 대한 만족한 대답으로 되겠는지 모르겠으나 이 글에서 나는 김정은각하께서 2010년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추대되신 그때로부터의 그분의 정치방식을 지켜보며 인상깊이 받아안은 느낌들가운데서 몇가지만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한다.

첫째, 김정은각하는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사상리론의 대가이시라는것이다.

그분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저서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의 심오성과 철학성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만 보아도 그렇다. 문구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이 저서는 자기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지 스스로 애국의 길에 떨쳐나서게 하는 기치와도 같은 문헌이다. 그분께서 발표하신 저서들은 그 어느 사상가나 리론가도 내놓을수 없는 고전적문헌들이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정치계는 각하의 저서들을 정치활동의 교과서로 깊이 연구하며 지침으로 삼고있는것이다.

둘째, 김정은각하는 황홀함의 극치를 이루는 가장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지니신 매혹적인 정치가이시라는것이다.

각하의 국가정책작성의 절대적기준은 인민의 리상과 지향이며 시책실현의 드팀없는 원칙은 인민의 리익과 편리의 선차적보장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서라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험천만한 최전연시찰길에도 오르시고 건설장의 진창길도 걸으시는것이 그분의 체질화된 지도기풍이며 병사들을 위해 지휘관이 있고 대중을 위해 일군이 필요하다는것이 그분의 일관한 인민복무의 지침이다.

셋째, 김정은각하는 다재다박하신 신비한 두뇌의 소유자이시며 일단 구상하신것은 반드시 최상의 수준으로 해제끼시는 제일의 창조자, 실천가이시라는것이다.

그분은 첨단과학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과학분야에 도통하신 천재이시다.

조선의 곳곳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례외없이 과학적인 통찰력과 신비한 창조적안목을 지니신 그분의 헌신적인 령도의 손길이 닿아있다.

넷째, 김정은각하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단호하고 령활무쌍한 기질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존엄의 최고수호자이시라는것이다.

조선의 제도를 허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압살책동의 도수가 전례없이 높았던 2013년 한해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변들은 그에 대한 실례이다.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의 제시, 핵보유국법령채택…

이는 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부강번영도 인민의 행복한 삶도 있다는 김정은각하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의 뚜렷한 시위이다.

총체적으로 김정은각하는 세계가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같으신 백두산혈통의 절세위인이시며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것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내나름의 답이다.

빈약한 나의 견해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조선의 현실을 직접 보라고 권고한다.

나는 정치방식은 곧 지도자의 정치실력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나의 견해에 주석을 가하려고 한다.

오늘 조선인민이 자기의 넋으로 체현한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로지 승리만을 향해 전진하는 앞으로의 공격정신이다.

수령이 가리키는 길은 언제나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잘 아는 조선인민은 자기들이 선포한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그 불변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령도자가 결심하면 큰 산도 떠옮기는 결사의 관철로 화답한다.

지난해 정초에 나는 로마에서 조선의 마식령에 방대한 규모의 스키장이 완공된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전해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알지 못했던 마식령스키장이 건설된것이다. 스키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다는 우리 유럽에서도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스키장을 건설하자면 10여년은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남들이 한결같이 감탄하는 세계급의 스키장을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건설한것이다. 놀랍다 하기에는 너무도 말이 모자라는 경이적인 사변이다.

그런가 하면 향기그윽한 사과바다가 눈뿌리 모자라게 펼쳐지고 인적드문 불모의 등판이 세계적인 축산기지의 면모를 드러내며 조선의 모습이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단 1~2년사이에 조선의 도처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눈부시게 펼쳐진 선경들을 일일이 꼽지 않겠다.

조선에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로 되였다. 말그대로 천지개벽이다.

힘이 없으면 이런 희한한 현실을 펼칠수 없다.

아는것처럼 태양에네르기는 가벼운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되여 새로운 무거운 핵을 이루면서 내보내는 에네르기이다. 수소핵융합에 의하여 생기는 에네르기는 핵분렬반응에 의하여 방출되는 에네르기의 수배나 된다고 한다.

태양이 그토록 뜨겁고 그토록 광휘로움은 바로 이 수소핵들의 끊임없는 융합의 결과이다. 이 행성에 생명이 태여나게 하고 그 진화를 촉진시킨 태양의 존재방식은 한마디로 융합이며 그 힘은 무궁무진하다.

바로 조선이 이러한 융합방식의 든든한 사회구조를 이루고있는것이다.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조선의 일심단결, 이는 자기 수령을 중심으로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의 뉴대로 융합된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발현이다.

그것이 일심단결이라는 대명제로 불리우는것이다.

핵융합에네르기가 핵분렬에네르기보다 비할바없이 크듯이 하나로 굳게 뭉쳐진 조선의 일심단결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힘이다.

하다면 이 일심단결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김정은각하께서 펼쳐가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지금도 각하께서 세계언론계의 초점을 모으며 단행하신 조선서해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시찰소식을 접하며 TV에서 본 그날의 광경이 눈에 선하다.

나라의 수령이시며 군의 최고사령관이신 각하께서는 그때 작은 목선으로 그것도 몇명밖에 안되는 수행성원들과 함께 험한 바다길을 헤쳐 일촉즉발의 위험이 감도는 섬초소를 찾으시였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조이게 한 이 사실자체도 놀랍지만 초소의 병사들과 군인가족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하고 세심히 보살피시는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킨 눈물겨운 화폭이였다.

불같은 사랑과 바다같은 인정미를 지니신 각하이시기에 군대와 인민은 만나뵈올 때면 너무도 감격하여 저저마다 그분의 품에 얼굴묻고 눈물흘리며 헤여질 때에는 너무도 아쉬워 차디찬 바다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그이를 오래도록 바래워드리는것이다. 이는 이름있는 연출가도 재현할수 없고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다.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분의 불같은 열정,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려는 무한한 그 사랑에 끝없이 매혹되여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것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김정은각하의 인덕정치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추동력이며 이 행성도 움직일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다.

2015년 새해 첫날 세계보도계의 초점을 모으며 신년사를 하신 김정은각하의 자애로운 모습이 방불히 안겨온다. 여러 나라의 수반들이나 정객들의 년두사라는것을 많이 보아왔지만 나는 난생처음으로 느끼는 감흥을 금할수 없었다. 찬란한 래일을 락관하시며 자신감과 확신에 넘치시여 여유있게 하시는 그분의 힘있는 연설은 참으로 위엄있고 과감하시였다.

김정은각하의 신년사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부강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실 웅지를 안으신 세련된 정치지도자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를 낳고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과 무조건적인 실천을 안아오는것은 김정은각하의 인민적인 정치실력의 매력이다.

최근 조선인민들속에서는 《그이 없인 못살아》라는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노래는 단순히 생활의 가요가 아니다. 민족의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정은각하를 자기들의 운명으로 간주하는 조선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조선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그토록 우러르며 그이 없인 못산다고 절절히 구가하는 인민은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태양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체의 존재도 생각할수 없듯이 김정은각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조선인민이 심장으로 간직한 철석의 신념이다.

정녕 김정은원수각하는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펼칠수 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류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오늘의 태양이시다.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동방조선의 태양의 력사는 영원할것이다.

이것이 내가 인생체험으로 절감하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주장하는 태양의 진리이다.

먼 후날에도 사람들은 서방의 한 인간이 펼친 주장이 변함이 없음을 확신하게 될것이다.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2015년 2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18일 제19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아름답게 피여난 위인칭송의 명화들이 황홀한 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일민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제19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희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이 차넘치는 불멸의 꽃축전장이다.

지구상에 뿌리내린 꽃들이 많고많아도 김정일화처럼 전인류가 심장으로 받들어올린 명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만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꽃이다.

반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삼천리에 만발할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줄리아웅 마떼우스 빠울루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총비서가 13일 김현일 앙골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에도 건강하시여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끄시는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의 축원의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총비서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선군령도로 제국주의세력의 온갖 방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조선을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걸출한 위인이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인민적령도자이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이의 혁명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시여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인민생활향상,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기에 조선은 련이어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기세를 그 누구도 꺾을수 없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평화보장, 세계자주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반제자주립장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특히 조선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공동위업을 위한 투쟁을 통해 맺어진 조선로동당과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킬것이다.

녀성동맹이 애족애국운동에서 더 큰 몫을 담당수행하자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본부위원장회의 진행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본부위원장회의가 6일과 7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각지 녀성동맹 본부위원장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허종만의장은 력사적인 올해 투쟁을 벌리는데서 녀성동맹 본부위원장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녀성동맹 본부위원장들이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녀성운동을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강추련위원장은 올해 녀성동맹이 《총련결성 60돐을 새로운 전성기에로의 비약의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갈데 대해 언급하였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공격전과 총련조직고수투쟁에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녀교양사업과 민족교육고수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여 제10차 중앙어머니대회를 빛내이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녀성동맹 본부위원장들이 재일조선녀성운동의 지휘성원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와 새해축전을 높이 받들고 총련결성 60돐을 비약의 성과로 빛내이며 동맹사업발전의 획기적전환을 이룩하는데서 맡은 임무와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올해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후승리를 안아오는 백두령장의 힘찬 발걸음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의지와 기상이 하늘에 닿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놓으려는 우리 겨레의 투쟁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면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더한층 강화하고있다. 날강도 미제는 우리 인민의 생명인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어째볼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반공화국제재와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괴뢰패당도 대화와 평화적환경보장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면서 상전과의 반공화국대결공조에 미쳐날뛰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이 이처럼 최후발악적으로 감행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하지만 적들의 그 어떤 침략적도전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있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날로 강화되고있는 무적의 혁명강군이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내외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있다. 민족의 원쑤, 통일의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하여 백두산총대가 무섭게 뢰성치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던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진행된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한없이 격동시켰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를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려는 천만군민의 의지가 치솟고있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선군혁명의 강행군길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흙먼지날리는 포사격훈련장과 해풍에 옷자락이 날리는 전투함선, 바람세찬 비행장활주로에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시며 백전백승의 지략과 슬기, 일당백의 묘술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이 있어 이 땅의 평화와 인민의 안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지 않았던가. 진정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일제의 백만대군을 벌벌 떨게 하여 백두산호랑이로 명성떨치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을 쥐락펴락하며 단호한 불호령을 내리시던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태양이시다.

령장의 슬하에 어찌 약졸이 있을수 있겠는가. 백두령장의 제일동지, 제일전우라는 영예와 긍지드높이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우렁차게 부르며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위해 서리발총창을 번뜩이며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고있다.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수놓아진 선군령장의 위대한 발걸음은 또 그 얼마나 천만군민의 심금을 울리는것인가. 한평생 이 나라의 높고 험한 산발들과 령들을 넘으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원수님께서는 전선길 자욱마다에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남기고계신다.

하기에 원쑤들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의 폭음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반미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 혁명적신념만이 고동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뭉쳐 힘차게 전진해가는 이 도도한 흐름을 과연 그 누가 가로막을수 있겠는가.

얼마전 한 외신은 《공중—수중기습타격전법을 연습한 북조선의 항공모함격침결사대》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2015년 1월 31일 조선언론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밑에 미국이 무적의 함대로 내세우는 항공모함전단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이 진행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핵추진항공모함은 아메리카제국이 최강으로 여기는 무력수단이자 해양패권의 상징이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들에는 전투폭격기와 대잠직승기, 수직리착륙비행기 등 각종 함재기 90대와 수천명의 병력이 탑승한다. 조선반도주변에 상시적으로 배치되여 북침공격기회를 노리는 핵추진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조선은 이런 초대형핵추진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전법을 연습하고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여 미국과 추종세력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세계적으로 항공모함공격전법을 연습하는 나라는 몇개 안된다. 그나마 미국을 자극할가봐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은 세계가 보란듯이 당당히 자기의 전법을 공개하였다.

…지금까지 항공모함전단은 대규모화력을 집중하여 공격하는것이 상식으로 되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공개한 전법은 유격전식선제기습전법이다. 이것은 이제껏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항공모함절대우세론을 깨뜨려버렸다. 조선이 자기의 항공모함공격전법을 공개한것은 전쟁위험을 격화시킬 북침전쟁연습을 그만둘것을 미국에 경고한것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승리의 신심을 내외에 과시한것으로 된다.…》

보다싶이 미제와의 최후대결전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초강경으로 나가고있으며 원쑤들은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하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 백승의 기상앞에 적들은 전률하고있다.

온 겨레는 백두산호랑이의 단호한 기상으로 세계를 굽어보시며 오직 곧바로만 전진하고 돌파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선군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해내외의 온 민족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선군정치가 열어준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을 따라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이 얼마나 장쾌한 현실인가.

선군령장의 힘찬 발걸음속에 조국통일의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재로동포들 경축행사 진행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 연해변강 동포들의 경축행사가 11일 나호드까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위대성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에는 로씨야련방 연해변강고려인통일련합회 부위원장과 여러 지역의 동포조직일군들, 동포들 그리고 나호드까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총령사와 령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백두산에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오늘 조선이 불패의 위력과 민족의 존엄을 세계에 높이 떨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하시고 빛내여주시였으며 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로친선의 강화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시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높은 존경을 받으시였다고 칭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다고 밝혔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겨족적운동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조우호모임 진행

광명성절경축 일조우호모임이 6일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가네마루 싱고 이전 일본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싱의 정무비서, 데비 수카르노 김일성화김정일화보급후원회 명예회장,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나까무라 겡끼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회장, 도미야마 에이꼬 일본신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타 일조우호단체,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출판보도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총련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의 보고에 이어 여러 인사들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일본수상이 과거죄행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침략력사를 계속 부정하고있는데 대하여 까밝히고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일조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지금 일본정부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로골화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에 맞서 광범한 일본인민들이 재일조선인들과 힘을 합쳐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들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과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에서 큰 전진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수호=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주제넘게 노는자 된매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최근에 부임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하는 말이다. 오바마의 군살에 불과한 리퍼트가 요즘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얼마전 미국남조선의원외교협의회가 서울에서 벌린 먹자판에 나타난 리퍼트는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두가지를 함께 할수는 없을것》이라는 가소로운 나발을 불어대면서 《병진정책의 포기》와 《제재의 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줴쳤다. 이어 열린 어느 한 모임에서도 북이 《핵무기를 가지면서 번영과 안보를 추구》할수 없다고 뇌까렸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한사코 제거하고 반공화국압살흉계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흉심이 바로 리퍼트의 망발에 그대로 비껴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외교에서는 소학생에 불과한 리퍼트의 망발에 맞장구를 치며 북남대결의 골을 더욱 깊이 파고있는 사실이다.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데서 북이 《핵과 경제의 병진로선을 포기하지 않고있다.》고 독설을 내뿜은 박근혜는 며칠전에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회의라는것을 열고 《안보는 핵이 아닌 두툼한 지갑》에서 나온다고 떠벌이며 우리를 또다시 걸고들었다. 지난해 4월 오바마의 남조선행각당시 그앞에서 구세주라도 만난듯이 승이 나서 《북 비핵화》니, 《병진로선실패》니 하며 우리를 마구 헐뜯던 그때의 대결본색그대로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1960년대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으로 미제의 대조선침략야망을 짓부셔버린것처럼 새 세기에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심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는것은 그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정세를 어떻게 하나 파국에로 몰아가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는것을 확신케 한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는 우리의 병진로선을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마구 비방하는 자리에서도 뻔뻔스럽게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본색은 감추지 못하였다.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정책실행의 핵심부분이 남조선과의 《동맹》이라느니, 미국과 남조선은 《대북정책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고있다.》느니 하는 의미심장한 소리를 내뱉은것이다. 이것이 남조선당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저들에게 보조를 맞추라는 일종의 압력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리퍼트의 망동은 년초부터 미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이 련이어 남조선에 날아와 북남대화는 《북 비핵화》와 반드시 련계되여야 한다느니,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조선미국사이의 《빛샐 틈없는 공조》니 하면서 괴뢰당국에 침을 놓은 사실과 일맥상통하다.

리퍼트는 이미 《오늘밤에라도 북과 싸울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폭언한바 있는 호전광이다. 리퍼트에게는 대화라는 말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자를 남조선에 파견한 미행정부의 속심이 무엇이겠는가 하는것도 명백하다.

현실은 미행정부가 괴뢰당국과 작당하여 북남관계파국을 극구 조장하면서 대화분위기를 완전히 파괴하고 조선반도에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립증해준다.

하지만 미국과 괴뢰패당은 오산하고있다. 적대세력이 제아무리 우리를 시비질하며 반공화국압살소동에 미쳐날뛰여도 우리는 이미 택한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것이며 도발자들을 선군의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다.

개는 짖어도 병진의 기관차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쳐달릴것이다.

리 효 진

권력욕에 환장한 추악한 모략군들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이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를 부정협잡으로 치른것이 드러나 민심의 분노가 고조되는 속에 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온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이라는것이 권력야욕실현을 위한 정치적음모였다는것이 확인되여 여론이 물끓듯 하고있다.

지난 2월 6일 남조선《법원》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페기협의로 기소된 로무현《정권》시기의 청와대 안보실장 백종천과 안보정책비서관 조명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괴뢰검찰은 《정권》교체시기에 력사적으로 보존되여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넘기지 않고 제멋대로 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사건관계자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폐기된 담화록은 초안으로서 《대통령》기록물로 볼수 없으며 또 그것은 응당 폐기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검찰측의 론거를 부정하고 협의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것이다.

결국 지난 2013년 보수집권세력이 괴뢰검찰을 내세워 기소한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 관계자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 판결을 놓고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검찰이 집권세력의 추동을 받고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정치검찰로서의 나쁜 실례를 남겼다.》고 비난하고있다.

판결과 관련하여 여론의 눈총은 자연히 보수집권세력에게 쏠리고있다.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을 조작해낸것도 그들이고 로무현《정권》 관계자들을 《종북》으로 몰며 《대통령》선거분위기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든것도 그들이기때문이다.

그에 대해 다시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사건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박두하였던 2012년 10월 《새누리당》 의원이 괴뢰국회 국정감사에서 로무현《정권》이 북남수뇌상봉시 《북방한계선포기》발언을 하였다고 고아대고 그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더욱 여론화하면서 터져나왔다. 당시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민주개혁세력을 《령토주권포기세력》으로 몰아대면서 《대통령》선거구도를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세력》 대 《종북좌파세력》의 대결로 만들려고 발광하였다. 보수패당은 로무현《정권》이 《북방한계선을 팔아먹었다.》느니, 《종북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면서 로무현《정권》의 핵심관계자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를 《종북좌파》로 걸고들었다. 그리고 선거가 있기 5일전에는 저들에게 유리하게 뜯어맞춘 담화록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렇게 음모적방법으로 《대통령》자리를 따낸 보수패거리들은 그 이후에도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계속 악용하였다. 2013년 6월 부정협잡으로 얼룩진 《대통령》선거의 내막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현 집권자의 탄핵문제까지 일정에 오르자 바빠맞은 괴뢰보수패당은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당시 정보원장이였던 남재준을 시켜 담화록전문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하는것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무지막지한 범죄라고 하면서 보수패당의 처사를 규탄해나섰다. 야당세력은 정보원이 공개한 담화록은 인위적인 짜맞추기로 꾸며낸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렇게 되자 괴뢰집권세력은 뻔뻔스럽게도 정보원이 공개한 담화록을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있는 원본과 대조하자고 들고일어났다. 그후 《대통령》기록물보존소에 원본이 없다는것이 확인되자 보수패거리들은 때를 만난듯이 로무현측이 뒤가 켕기여 원본을 폐기했다고 터무니없는 날조선전을 하면서 괴뢰검찰을 동원하였다. 결국 2013년 10월 2일 괴뢰검찰은 로무현《정권》이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그 초안을 《대통령》의 개인자료기지에 보관하였다가 삭제하였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모든것이 저들의 기도대로 되여가자 기세가 오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초(력사자료원본)폐기》니, 《국기문란》이니 하고 고아댔는가 하면 나중에는 북남수뇌상봉과 관련한 음성자료까지 공개하겠다고 날치였다. 그리고 보수언론들까지 총동원시켜 마치도 큰 범죄나 들추어낸것처럼 벅적떠들었다.

친박계의 핵심인물이며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던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이 2007년의 북남수뇌상봉에서 로무현《대통령》은 《북방한계선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계속 억지를 부리며 지난 2014년 6월에는 철면피하게도 검찰수사결과라는것을 통해 백종천과 조명균에게 북남수뇌상봉담화록초본삭제혐의를 들씌우고야말았다. 반면에 특급비밀문서인 《대통령》관련기록물은 그 누구도 함부로 열람하거나 공개할수 없다고 규정한 해당 법률을 뻐젓이 위반한자들에게는 《솜방망이처벌》을 주는것으로 그쳤다.

재미난 골에 범이 나오고 도가 넘으면 랑패를 보기마련이다. 모략에 환장한 괴뢰보수패당이 감히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야당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북남관계까지 해치며 정치적음모를 계속 꾸몄지만 종당에는 그 내막이 다 드러나고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권력의 시녀인 검찰은 《존재명분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특급범죄자들을 당장 엄하게 처벌할것을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 괴뢰집권세력이야말로 권력욕에 미친 나머지 지어 북남수뇌상봉의 내용까지 외곡하며 정치적사기와 협잡을 일삼는 추악한 시정배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진실과 옳바른 언론이 사라진 남조선사회를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괴뢰당국의 진보적언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여 11일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선언문은 남조선은 진실과 옳바른 언론이 사라진 세상이라고 개탄하였다.

권력을 유지하려는자들에 의해 진실이 외곡당하고있으며 언론들은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여 편파적이고 외곡된 보도를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불의에 저항하며 언론의 본분을 다하려는 언론인들을 탄압하고있으며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 민중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참혹한 심정을 안고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언론위원회를 결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현의 자유보장, 언론의 공정성보장 등 옳바른 언론을 위한 10대과제를 내세우고 적극 활동할것이라고 선언문은 밝혔다.

남조선에서의 《유신》독재부활을 단죄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1월 30일 인터네트홈페지에 파쑈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폭로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남조선당국이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데 이어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보안법》개악놀음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보안법》은 과거 파쑈독재《정권》의 유물이다.

세계의 인권옹호단체들은 남조선의 《보안법》을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탄하고있다. 글은 남조선에서 통일애국단체들과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행위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까밝히고 현실은 현 집권자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99%가 노예처럼 사는 사회
남조선방송이 개탄

13일 남조선 《CBS》방송이 절대다수의 빈곤층이 대를 물려가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 남조선의 기막힌 현실을 개탄하였다.

방송은 지금 남조선사회가 부모의 신분이 천민이면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민이 될수밖에 없었던 과거 봉건사회를 닮아가고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성공회대학교의 한 교수가 《비정규직의 직업이동연구》라는 제목의 론문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고용형태가 자녀에게 세습된다는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한것이라고 하면서 방송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론문을 요약하면 정규직,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자녀들의 70%는 비정규직이 되고 부모가 비정규직일수록 자녀들이 비정규직으로 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것만 있는것이 아니다.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해마다 줄어들고있어 8년사이에 최저로 떨어질 처지이다.

상층 1%에 고용된 99%가 마치 노예처럼 살고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얼마전 한 대학교내 게시판에 오른 글이 화제가 된적이 있었다.

글내용의 핵심은 현재의 취업경쟁과 출생률감소가 상층 1%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20대의 몸부림이라는것이다. 상층 1%에 들지 못하면 모두 노예처럼 사는 세상, 1%가 모든것을 독차지하는 세상이 되여버렸다.

룡산철거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당국의 파쑈적인 폭압만행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룡산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여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룡산참사로 지울수 없는 고통을 겪고있는 유가족들이 투쟁에 나섰다고 언명하였다.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서 당국이 철거민들로부터 빼앗은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피고석에 끌어내야 할 인권말살주범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은 북남대화를 가로막고 조선반도를 대결과 전쟁의 수렁속에 깊숙이 몰아넣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그 누구의 《붕괴》설까지 늘어놓으며 날강도적인 북침기도를 드러낸 미국상전의 장단에 곡조를 맞추어 《북인권》나발을 더욱 집요하게 불어대는 남조선당국의 대결망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라는데서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또다시 혀바닥에 올려놓으며 《국제적관심》이 어쩌구저쩌구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이것은 《인권》모략소동에 계속 매달려 여론을 오도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적인 압살공조를 실현해보려는 범죄적흉심을 드러낸것으로서 괴뢰들이 입만 터지면 《대화》요, 《관계개선》이요 하고 떠드는것이 다 가짜이고 그들의 골수에 들어찬것은 오직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칠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하늘에 대고 뱉은 침방울은 제 낯짝에 떨어지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보편적가치》니 뭐니 하며 저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에 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반역적정체와 취약성만을 드러낼뿐이다. 사실 인권피고석에 앉아 온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장본인은 다름아닌 남조선을 처참한 민주의 폐허로,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만든 괴뢰패당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인권을 미국에 깡그리 팔아먹고있는 매국반역무리이다.

인권은 자주권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자주권이 없는 곳에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외세에게 자주권을 빼앗기면 인간의 존엄은커녕 인민들이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수난을 당해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다.

미제침략군에 의해 자주권을 짓밟힌 남조선인민들이 모진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 현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은 온갖 치외법권을 행사하면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최근에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야수가 흉기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략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제침략군이 이렇듯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있다. 이로 하여 미군범죄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날뛰고있다.

외세앞에서 초보적인 주권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식민지주구들은 사실상 인권을 론할 그 어떤 자격이나 체면도 없다.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해마다 막대한 혈세를 미군유지비로 섬겨바치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응당 돌려받아야 할 군사주권마저 안받겠다고 뿌리치며 침략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의 역겨운 추태는 진정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남조선은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여지없이 짓밟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의 땅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찍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니 뭐니 하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유린말살되는 저들의 체제를 미화분식하려고 획책하고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써도 남조선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가리울수 없다.

여기에 남조선에서 인권이 얼마나 심각히 유린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한가지 생동한 실례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남조선전역에서는 미국산소고기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초불집회와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미국에 모든것을 깡그리 팔아먹은 희세의 매국노 리명박역적패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까지 개악하면서 항의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탄압하였었다. 당시 유모차를 끌고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다가 파쑈당국에 의해 기소된 한 녀성이 있다. 그때 유모차에 탔던 아이가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였는데 녀성은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변화》를 떠들어대는것은 저들의 이런 험악한 인권실태를 가리우고 썩어빠진 식민지독재체제를 우리에게까지 연장해보려는 술책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악화되는 인권실태는 파쑈독재를 생존방식으로 하는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인 폭압정치의 산물이다.

력대로 남조선의 통치배들은 악명높은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동족대결과 집권유지,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삼아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인민들의 초보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범죄시하며 가로막는 가장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악법이 바로 남조선의 《보안법》이다. 그것이 세계적인 인권말살법으로 락인된지는 이미 오래다. 21세기의 문명시대에 아직 이런 중세기적인 악법이 존재한다는것은 인류의 수치이다.

하지만 남조선에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있는 현 괴뢰집권세력에 의하여 《보안법》은 더욱 시퍼렇게 독을 쓰고있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등장한 이후 몇년사이에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각계층 인민들이 《보안법》에 걸려 탄압당한 사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얼마전에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그와 함께 활동한 재미교포녀성이 《보안법》의 희생물이 되였다. 그에 대한 내외의 규탄여론이 비발치자 괴뢰패당은 그 무슨 《북과 대치한 특수한 사정》이니 뭐니 하며 저들의 파쑈적망동을 정당화하는 추태를 부렸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온 남조선땅을 참혹한 민주의 폐허지대, 인권의 무덤으로 만든자들이 저들의 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동족을 모해하는 《인권》모략소동에 피를 물고 날뛰는것은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괴뢰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는것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반공화국《인권》모략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면서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괴뢰패당의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박 철 준

ㄱ-51028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